

피코 델라 미란돌라의 『존재자와 일자』 연구

김은주

(전남대학교 철학과 강사)*

- I. 서론
- II.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
- III. 피코의 『존재자와 일자』
 - 1. 존재자는 신보다 우월한가
 - 2. '일자'로서의 신에 대한 규정
 - 3. '일자'의 '존재자'로서의 성격
- IV. 피코의 주장에 대한 당대의 반박
- V. 결론

* realis20@hanmail.net

I. 서론

흔히 인간중심 정신의 ‘재생’ 혹은 ‘부활’로 잘 알려진 르네상스 시대는 무엇보다도 고대 그리스 처락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관심은 고대 철학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가운데 누가 더 우위에 있는가에 관한 논쟁이 되었다. 그들에게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펼쳐 보이는 사상은 천년이라는 시간과 기독교라는 장벽으로 인해 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대립 되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신성을 함의한 것으로 보이는 ‘일자’¹⁾와 보편적 의미의 ‘존재자’²⁾를 두 철학자는 어떻게 정립했는지가, 과연 누구의 사상이 더 기독교 사상에 합치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두 사상은 격돌했다. 이는 5세기 분열 이후 천년 가까이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던 두 로마 진영이 하나가 되면서 시작되었다.

양쪽 로마가 온전히 하나가 된 것은 1453년 비잔틴 제국의 몰락이라는 사건과 함께였지만, 이미 위기 상태였던 동로마제국, 혹은 비잔틴 제국은 적극적으로 옛 서로마지역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다. 4차 십자군 전쟁 당시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공격당한 이후 서서히 소멸의 길을 걷고 있던 동로마제국은 요한네스 5세 팔라이올로고스 황제(John V Palaiologos) 이후 시작된 내부 분열과 이 틈을 탄 오스만 제국의 침

-
- 1) 본 논문이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피코의 책인 『De Ente et Uno』의 제목을 『존재자와 일자』로 번역하였다. 영어의 be동사에 해당하는 라틴어 sum 동사의 inf.인 esse를 ‘존재’ 혹은 ‘~임’으로 번역하고, 현재분사형태의 중성명사화인 ‘ens’를 ‘존재하는 것’, ‘존재자’로 하였다. 이는 고대 그리스어의 be동사 1인칭 현재인 ‘εἰμί(inf.-εἶναι)’의 중성분사에서 비롯한 중성명사 ‘τὸ ὄν’을 ‘존재하는 것’으로 번역 한것에서 가져왔다.
 - 2) ‘unum’의 5격인 ‘uno’는 ‘하나의~’를 뜻하는 그리스어의 중성 단수 형용사의 명사화인 ‘τὸ ἓν’에서 왔기에 ‘일자’로 번역했다.

략까지 겹치면서 위기가 극에 달했다. 요한네스 5세가 죽자 오스만 제국과의 평화를 위해 볼모로 가 있던 마누엘 2세(Manuel II Palaiologos, 재위 1391~1425)가 급히 돌아와 황제가 되었다. 그러나 마누엘 2세가 볼모 상태에서 허락없이 콘스탄티노플로 돌아간 것을 빌미로 오스만 제국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고, 다급해진 마누엘 2세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서로마 지역으로 떠났다. 그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챙겼는데, 그것은 인문학적 소양으로 무장한 학자들이었다. 이렇게 1393년의 첫 번째 공의회는 동·서 십자군 결성을 성공시켰으나 무참하게도 1396년 니코폴리스 전투에서 오스만제국의 술탄 바예지드 1세에게 패배했다.

1422년 마누엘 2세가 죽은 뒤 새로 황제가 된 요한네스 8세는 선황이 그랬듯, 오스만의 공격을 막기 위해 서로마의 교황이었던 에우게니우스 4세(Eugenius IV, 재위 1431~1447)와 협상을 벌였고, 1437년 페라라-피렌체 공의회에 또 한 번 학자들을 보냈다. 결국 1453년 동로마 제국은 완전히 멸망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차례의 공의회에서 동쪽의 유럽과 서쪽의 유럽이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다.³⁾

비록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두 진영의 만남이 성사되었지만, 그 영향은 사상 측면에서 폭발적 성과를 이뤄냈다. 플라톤주의가 우세했던 동쪽 진영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서쪽은 공의회라는 사건을 통해 접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상의 교류가 일어났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감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조화가 가능함을 주장했던 피코(Giovanni Pico della Mirandola)의 사상을 그의 사후에 출판된 『존재자와 일자에 관하여』(De Ente et

3) 비잔틴 제국의 역사에 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 존 줄리어스 노리치, 『비잔티움 연대기 3』, 남경태 역, 바다출판사, 서울, 2016.

Uno)의 내용을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동안 국내에 소개된 피코의 저서는 성염 선생이 연구한 피코의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에 대한 번역서와 논문이 전부였다. 다음으로 르네상스 시기에 두 세력의 만남과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 사이의 논쟁을 다룬 김은주의 글이 있었다. 다만 이 글은 두 진영 사이의 대립이 존재자와 일자에 대한 대립에 대한 것임을 밝히는데 주력했으나 이후 그를 조화시키려 했던 피코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⁴⁾ 이후 안승훈은 보다 구체적으로 피코가 시도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그러한 시도가 완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즉 피코가 기획했으나 결국 완성하지 못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조화』(Platonis Aristotelisque Concordia)가 『존재자와 일자에 관하여』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 논문을 썼다.⁵⁾ 본고가 시도하고자 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피렌체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가 대립하게 된 이유와 과정,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그 어느 쪽에도 서지 않음으로써 비판받았던 피코와 피코가 자신의 사상과 의도가 담긴 『존재자와 일자』를 집필했음과 그 내용을 번역, 드러내고자 한다. 셋째, 그가 쓴 『존재자와 일자에 관하여』이 다루고 있는 내용의 문제점을 동시대 학자인 치타디니(A. Cittadini)의 반박글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피코의 『존재자와 일자』를 통해 르네상스 시대 피렌체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두 철학자의 대립의 관점과 그 조화를 시도한 피코의

4) 김은주, 「피렌체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연구』, 제167권, 대한철학회, 2023, 83-108쪽.

5) 안승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조화 『존재자와 일자』에서 피코의 방법에 대한 분석」, 『대동철학』, 제105권, 대동철학회, 2023, 155-192쪽.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

위기에 봉착한 비잔틴 제국의 황제 마누엘 2세에게 철학자였던 플레톤(G. G. Plethon)은 시민들을 윤리적으로 무장시킬 것을 제안한다. 즉 도덕의식을 함양한 시민이 스스로 국가를 지키게 하자는 것이었다.⁶⁾ 플레톤이 황제에게 조언을 위해 바친 이 글에는 소수의 지식인에 의한 강력한 중앙집권제나, 새로운 헌법의 도입, 오직 헬라스인들만으로 구성된 군대 등, 플라톤의 『법률』에 등장하는 사상과 매우 유사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책의 제목은 『법률-*Νόμων συγγραφή*』로, 그의 최후의 작품이기도 하다.⁷⁾ 그는 철저한 플라톤주의자였던 것이다.

-
- 6) 플레톤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그러나 플레톤이 비잔티움 제국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정치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보낸 편지 등 중요한 자료들이 남아 있어 개략적인 파악이 가능하다. “플레톤은 요하네스 7세 팔라이올로고스황제가 서방으로의 모험에 가까운 여행을 했을 때인 1370년에 15세였다”라는 언급을 통해 그가 1355년경에 출생했다는 점과 더불어 “황제 테오도르 1세 팔라이올로고스(마누엘 2세의 동생, 펠로폰네소스의 모레아를 통치)가 펠로폰네소스반도를 통치했던 1393년 스파르타에 도착했다는 것”, 그곳에서 “33세 때부터 교사로서 활동했음” 등을 알 수 있다. 이후 1414년까지의 정확한 삶에 대해서는 기록의 여백이 있지만, 그가 펠로폰네소스반도의 스파르타에 도착한 이후, 당시 그곳의 수도였던 미시트라(Misithra 혹은 Mistra)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게오르기오스 트라페준티오스(Georgios Trapezuntios)에 따르면, 그가 “거의 100년을 살았다”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1450년경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1427년 펠로폰네소스의 공작이 그에게 봉토를 주었을 때를 기점으로 몇 년 동안 펠로폰네소스 영지에 살았는데, 이때 베사리온(Bessarion)의 스승이었다고 한다.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요하네스 8세 팔라이올로고스(Johannes VIII Palaiologos, 재위 1425~48)에게 서방 교회와의 연합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이것이 10년 후에 있을 공의회에 황제가 플레톤을 동방 교회의 대표로 보내게 된 이유였을 것이라고 슐츠(F. Schultze)는 설명하고 있다. F. Schultze, *Georgios Gemistos Plethon Und Seine Reformatorischen Bestrebungen* (Jena, Mauke's Verlag, 1874), S. 24, 30-31, 40-43,

그의 이름을 건 첫 번째 책인⁸⁾ 『차이들에 관하여』(De Differentiis Platonis et Aristotelis)에서 플레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두 사상가의 신에 관한 개념의 차이를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차이는 그 의미에서 벗어나 플레톤의 우위를 주장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⁹⁾ 이 책에서 플레톤은 “대부분의 고대인들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플라톤을 더 선호했으나, 현대에는 아리스토텔레스를 더 선호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포문을 연다. 플라톤은 신을 하나의 독립적으로 분리된 실체로서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창조자이고 동시에 전 우주의 창조자로서 훨씬 더 높은 힘을 가진 존재로 보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저 신을 우주의 동력, 원동자로만 보고 있다는 것이 플레톤의 생각이다. 또한 플라톤이 신을 존재의 목적이자 최초의 원인으로 상정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은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적, 즉 운동과 변화의 최종 목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서유럽의 대세로 자리 잡고 있던 상황에서 플레톤의 책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너도나도 할

7) F. Schultze, 앞의 책, S. 41. 그가 죽고 나서야 발견된 이 책은 모레아의 군주의 아내였던 테오도라 공주의 손에 들어갔으나 그녀가 이를 스킴라리우스에게 보냈고, 그에 의해 소실되었다. 그러나 파괴하기 전, 책의 내용을 편지로 써서 총독 요셉에게 보냈고, 이 편지가 남아 있어서 책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책에는 국가통치, 법률체제뿐만 아니라 1423년 오스만제국의 침입 과정에서 무너진 코린토스 지협을 둘러싼 고대 방어벽을 세우는 계획, 토지 소유권과 가족제도 등, 온갖 실용적 대안들까지 망라하고 있다. M. Bruce, “George Gemistos Plethon” in A. Amoia & B. L. Knapp(eds.), *Multicultural Writers from Antiquity to 1945: A Bio-Bibliographical Sourcebook*,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01. 참고.

8) 그는 자신의 이름을 Georgus Gemistos(그의 이름인 Gemistos는 그리스어 γεμίξεν-채우다-에서 유래한 것)에서 동일한 뜻을 가진 동사 그리스어 πλήθω의 분사인 Πλήθον으로 바꾸었다. 같은 의미를 가진 회람어로 바꾼 것은 의도적으로 플라톤에 대한 존경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위 F. Schultze의 책, S. 24.

9) C. M. Woodhouse, *George Gemistos Plethon: The Last of the Hellenes*, Oxford: Clarendon Press, 1986, pp. 171-214 참조.

것 없이 이 책을 읽고 토론에 참여했으며, 플라톤에 대한 관심이 끓어 올랐다. 그리고 플레톤의 이러한 주장을 꺾기 위해 같은 비잔틴 제국의 인물이었던 스콜라리오스(G. Scholarios, 1400-1473)가 1445년에 플레톤에 반박하는 책인 『플레톤에 대한 반박』(Contra Plethonem)을 내고 정면으로 맞섰다. 그리고 그 포문은 “고대인들이 플라톤을 더 좋아했다고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한 방식처럼)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 반박하는 글을 쓰지는 않았다”는 문장으로 시작한다.¹⁰⁾

스콜라리오스의 반박은 어쩌면 당연하고 상식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비잔틴 제국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퍼져 있었고, 두 철학자의 사상이 다르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상태에서 누군가 한쪽을 좀 더 선호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한 사람에 대한 경시나 비판의 자세로 바라보는 상황은 아니었다.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더라도 그것이 곧장 플라톤 철학에 대한 우위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제안될 수는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점이 플레톤으로 하여금 『차이들에 관하여』를 쓴 이유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10) 인용한 부분은 플레톤의 다음 문장에 대한 일종의 대구를 이용한 반박이다. 플레톤은 자신의 『차이들에 관하여』의 처음을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Οἱ μὲν ἡμῶν παλαιότεροι καὶ Ἑλλήνων καὶ Ῥωμαίων Πλάτωνα Ἀριστοτέλους πολλῶ τῷ μέσῳ προετίμων. τῶν δὲ νῦν καὶ μάλιστα τῶν πρὸς ἐσπέραν οἱ πολλοί, ἅτε ἐκείνων σοφώτεροι οἰόμενοι γεγονέναι, Ἀριστοτέλη πρὸ Πλάτωνος θαυμάζουσι...”(우리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 가운데 더 고전적인 이들은 플라톤을 아리스토텔레스보다 더 존경해왔다. 그런데 지금, 특히 서쪽의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저들보다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게 되어서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보다 더 경탄하고 있다.) Plethon, *De differentiis*, 321, 3-8.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논박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했다. G. Karamanolis, “Pletho and Scholarios on Using and Abusing Plato and Aristotle, to appear in A. Corrias”, in E. Del Sordatol(eds.), *Harmony and Contrast: Platonism and Aristotelianism in the Renaissance*, 2022, pp. 99-121.

플레톤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강한 비판만큼 열정적으로 플라톤을 옹호하는 글을 썼다. 플레톤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 플라톤과 다르다는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부정한 최초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플레톤은 다시 1449년에 제록마저 재반박이 될 『스콜라리오스에게 맞서』(Contra Scholarii)를 쓰게 된다¹¹⁾. 그리고 두 사람의 논쟁은 플레톤과 스콜라리오스의 추종자들, 혹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에 의해 더욱 심화되어 갔다.¹²⁾

먼저 게오르기오스(G. Trapezountius, 1395-1484)¹³⁾는 1457년에 라틴어로 된 책을 한 권 출판했다.¹⁴⁾ 플레톤의 사상과 글에 대한 철저

11) G. G. Plethon, *Contra Scholarii pro Aristotele Obiectiones*, Leipzig: Teubner, 1988.

12) 특히 스콜라리오스의 학생이었던 M. Kamariotes는 스승 대신 플레톤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두 편의 짧은 글을 펴냈다. 그리고 페라라 대학의 교수로서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였던 가자(Theodore Gaza)역시 플레톤에 반대하는 글을 썼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이번에는 아포스톨리스(Michail Apostolis)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체에 관한 견해를 비판하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 이번에는 안드로니코스 칼리스토스(Andronikos Kallistos)가 아리스토텔레스와 가자를 옹호하면서 플레톤과 아포스톨리스를 논박했다. G. Karamanolis, "Pletho and Scholarios on Using and Abusing Plato and Aristotle", in *Harmony and Contra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참조.

13) 게오르기오스 트라페준티오스(Γεώργιος Τραπεζούντιος, 英 George of Trebizond).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트레비존드 출신이다. 비잔틴 제국이 4차 십자군 전쟁의 콘스탄티노플 공격에 의해 1204년 함락되어 라틴제국이 되었다가 1261년 미하일 8세 팔라이올로고스(Μιχαήλ Η' Παλαιολόγος, 재위 1223년-1282)에 의해 재탈환 되었다. 트레비존드 제국은 니케아 제국, 에피루스 전제군주국과 더불어 로마 제국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세웠던 3개 국가 가운데 하나이다. 1453년 비잔틴 제국이 멸망한 후 오스만 제국에게 계속 저항하다가 술탄 무함마드 2세의 한 달여에 걸친 수도 포위 공격으로 결국 1461년 완전히 멸망하였다. 게오르기오스는 고향에서 라틴어를 배운 후 베네치아 등 서로마 지역에서 이탈리아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그리스어를 가르치며 생계를 유지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교-Comparatio inter Platonem et Aristotelem』라는 제목의 책을 썼으나 플레톤이 그려왔듯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비교는 아니었고, 플레톤과 플라톤 모두를 종교적 측면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J. Monfasani, *George of Trebizond: A Biography and a study of His Rhetoric and Logic*, Leiden: Brill, 1976, pp. 152-171, 201-229 참조.

14) 그는 두 철학자의 철학을 비교하기 위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비교-Comparatio Philosophorum Platonis et Aristotelis(1458)』라는 책을 썼다. 이 책은 당시 쓰여진 수많은

하고 단호한 반박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서구의 이탈리아 인문주의자들 사이에 더 많은 논쟁을 초래했다. 플레톤의 책이 ‘차이’를 다루지 않았듯, 그의 책도 ‘비교’를 다루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글은 아리스토텔레스를 옹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플라톤에 대한 지극히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주시하고 있던 베사리온(J. Bessarion, 1402-1472)은 플레톤의 탁월한 제자로서 『플라톤의 무고자에게』(In calumniatorem Platonis)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을 붙여 게오르기오스를 저격하는 긴 글을 쓰게 되었다. 베사리온의 글을 통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주류였던 서로마 지역에서 플라톤을 연구하는 것은 결코 이단적 배교 행위가 아닌 것이 되었다. 이제 두 철학자에 대한 옹호와 비판은 종교라는 엄격한 갈날 아래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훨씬 더 치열하고 학문적인 공방의 색채를 띠게 되었다. 덕분에 두 철학자와 그들을 연구하는 상대방의 논점, 연구 방식에 대한 비방에 가까운 대립이 격화되는 것도 필연적이었다.

은 주석서로는 처음으로 라틴어로 쓰여졌다. 앞서 등장했던 플레톤의 책이 그리스어로 쓰여졌고, 그로 인해 라틴어를 사용하던 이탈리아 내에서 그 영향력의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게오르기오스의 책이 갖는 반향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만하다. 게오르기오스가 처음 접한 플라톤의 작품은 『고르기아스』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수사학에 관하여’라는 부제를 달고 소피스테스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을 읽고 게오르기오스가 가졌을 반감에 대해 짐작해 볼 만 하다. J. Monfasani, “Marsilio Ficino and the Plato-Aristotle Controversy”, in *Marsilio Ficino: His Theology, His Philosophy, His Legacy*, ed. M. J. B. Allen (Leiden: Brill, 2002), pp. 179-202 참조; L. Green, “The Reception of Aristotle’s Rhetoric in the Renaissance”, in *Peripatetic Rhetoric After Aristotle*, eds. W. W. Fortenbaugh, D. C. Mirhad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4), pp. 320-328 참조; J. Hankins, *Plato in the Italian Renaissance* (Leiden: Brill, 1991), pp. 168-170; J. Monfasani, *George of Trebizond: a biography and a study of his rhetoric and logic* (Leiden: Brill, 1976), pp. 18-19 참조; P. Schulz, “The Controversy between Platonists and Aristotelians in the Fifteenth Century”, in *Philosophers of the Renaissance*, ed. P. R. Blum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0), p. 27 참조.

그리고 메디치 가문에 의해 인문주의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피렌체에서는 피치노(M. Ficino)가 코지모 메디치의 후원을 받아 카레지에 세운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플라톤 전집의 라틴어 번역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피치노의 천재성에 힘입어 1484년에 플라톤의 대화는 라틴어로 모두 인쇄될 수 있었다. 카레지 빌라의 플라톤 아카데미는 플라톤주의자들이 스스로를 '아카데미학파'라 부르며 몰려 들었다.

그들 가운데 피코(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1463-1494)가 있었다. 다만 피코는 당시의 분위기, 그리고 연구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것은 위대한 두 철학자를 마주 보고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란히 세우고 그들의 사상이 일치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는 것이다. 피코는 이를 위해 『존재자와 일자』(De Ente et Uno)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¹⁵⁾ 제목에서처럼 피코는 존재자, 그리고 일자라는 개념에 대한 두 철학자의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이들의 화합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했다.

피코가 태어난 곳은 이탈리아 북부의 작은 미란돌라 공국이었다. 이미 그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¹⁶⁾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영민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다. 그의 나이 10살이 되었을 때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읽기 시작했고, 13세에 법학을 배우기 위해 볼로냐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다 철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페라라 대학과 파도바 대학에서 수

15) 앞에서 『존재자와 일자에 관하여』라는 라틴어 제목의 번역을 그대로 이용했으나 이후에는 『존재자와 일자』로 간략화 한다.

16) 피코의 생애에 대한 내용은 성염 선생의 책에서 자세히 알 수 있다. 성염, 『피코 델라 미란돌라-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또한 피코의 사후 그의 조카였던 잔프란체스코가 집필한 피코의 전기이 있다. Gianfrancesco Pico della Mirandola, *Ioannis Pici Mirandulae Viri Omni Disciplinarum Genere Consumatissimi Vita*, ed. and trans. B. M. Copenhaver, *Life of Giovanni Pico della Mirandola. Oration*(Cambridge/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2022).

학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텔 메디고(Elia del Medigo)를 스승 삼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관한 아베로에스주의적 해석들을 접했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에 매료되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가 되었다. 이 때 그의 나이 20대 초반이었다.

그리고 피코는 새롭게 플라톤에게 경도되었다. 피코는 1482년에 피치노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써서 그 자신이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에 대해 공부해 왔으며,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비교하고 싶다는 고백을 했다.¹⁷⁾ 1484년 무렵, 피치노의 『플라톤전집』 완역판의 출판을 앞두고 있었던 시기에 피코는 그를 만나게 되었고, 플라톤에 흠뻑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친구였던 바르바로(E. Barbaro)에게 플라톤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자신의 학문적 깨달음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¹⁸⁾ 특히 ‘존재자와

17) "Iam tres annos, Marsili, apud Peripateticos versatus sum, ... ut iam pro mei viribus ingenii, pro mea quanta maxima potest assiduitate et diligentia Platonem cum Aristotele et vicissim alternis studiis Aristotelem cum Platone conferrem(Pico, Opera, I, p. 271). E. Garin, *La cultura filosofica del Rinascimento italiano*, Milan; Bompiani, 1994, p. 255. 재인용. Kristeller에 따르면 피코가 머물렀던 1480년대 초반 무렵 파도바는 이탈리아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연구의 중심지였다고 한다. 피코는 이곳에서 당시 대표적인 아베로이스주의자였던 베르티아(N. Vernia)의 강의를 들었고, 훗날 피코의 『존재자와 일자』에 대한 반박문을 쓰게 된 치타디니(A. Cittadini)와도 교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P. O. Kristeller, *Studies in Renaissance Thought and Letters*, ed. di Strorria e Letteratrua, vol 3, Roma 1993. p. 245.

18) "에르몰라오, 당신에게 솔직히 말하건대, 나에게는 플라톤이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그가 저 시가와 문예를 위해 천상에서 내려온 호메로스와 같은 수사적 유창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완전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말만을 본다면 두 사람은 완전히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의 내용을 본다면 오히려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Videor tamen dicam tibi Hermolae quod sentio duo in Platone agnoscere, et Homericam illam eloquendi facultatem, supra prosam orationem sese attollentem, et sensuum, si quis eos altius introspectiat, cum Aristotele omnino communionem, ita ut si verba spectes, nihil pugnantius, si res nihil

하나(ens et unum)’의 문제가 그렇다고 생각했다. 이에 대해 정리한 글이 그의 사후에 출판되었던 『존재자와 일자』이다.

III. 피코의 『존재자와 일자』

『존재자와 일자』¹⁹⁾의 서문에 따르면 당시 피렌체의 지배자였던 메디치의 로렌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해설한 폴리치아노를 상대로²⁰⁾ ‘존재자와 일자’에 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 그리고 이때 폴리치아노는 플라톤주의자였던 로렌초의 비판에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마음에 걸려 하던 폴리치아노는 벗이었던 피코에게 자신이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를 변호했으면 좋을지를 물었다. 피코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조화』(Platonis Aristotelisque Concordia)라는 책의 집필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그러

concordius...”), Pico가 Barbaro에게 1484년 12월 6일에 쓴 편지. Pico della Mirandola, *Über das Seiende und das Eine, De ente et Uno*, lateinisch-deutsch, übersetzt und kommentiert von P. R. Blum, G. Damschen, Hamburg: Felix Meiner Verlag. 2006, S. X 참조(원문출처: Pico Mirandulanus, Joannes, *Opera omnia*, Basel, 1572, Reprint von E. Garin, Turin, 1971. p. 368.)

19) Pico della Mirandola, Dell’Ente e dell’Uno, eds. and trans. F. Bacchelli and R. Elgi, Milan: Bompiani, 2010. 이어지는 『존재자와 일자』 및 이에 대한 피코와 치타다니의 논쟁은 프랑코 바첼리(F. Bacchelli)와 엘기(R. Elgi)의 이 책을 인용하며, 본문 인용시 쪽수만 표기.

20) 1490-91년에 피렌체 스튜디오에서 있었던 폴리치아노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강연을 의미. “며칠 전 당신은 로렌초 메디치가 플라톤주의자들의 논변을 근거로 올해 당신이 직접 공개적으로 해설한 『윤리학』의 저자인 아리스토텔레스를 논박하며 ‘존재자와 일자’에 대하여 당신과 논하였던 것을 내게 이야기해주었습니다(Narrabas mihi superioribus diebus, quae tecum de ente et uno Laurentius Medices egerat, cum adversus Aristotelem, cuius tu *Ethica* hoc anno publice enarras, Platoniorum innixus rationibus disputaret)” p. 202.

한 의도 안에서 대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훗날 돌이켜보니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여겨졌기에 피코는 지면을 통해 이에 대해 보충하는 글을 쓰게 되었고 이것이 이 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책은 서문을 제외하고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코는 우선 플라톤주의자들의 일자의 존재자에 대한 우월성 주장에 관해 말한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우위가 플라톤의 주장이 아닌 플라톤주의자들, 아카데미아 학파의 주장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자와 존재자를 동등하게 그리고 있는 플라톤의 저술들을 근거로 삼는다. 다음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존재자와 일자를 동일시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렇게 해서 피코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두 철학자가 이견 없이 일자와 존재자를 조화롭게 보고 있음을, 두 철학자의 사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존재자는 신보다 우월한가

우선 피코는 두 철학자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즉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자와 존재자가 (범주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주장했지만, ‘아카데미학파’는 일자가 존재자보다 우선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²¹⁾ 그리고 아카데미학파들은 더 우선하다(prius)라는 용어에 일자의 더 보편적임, 그리고 더 단순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피코는 말한다. 즉 그들에 따르면 일자인 신은 최고의 단순성을 지니고 있지만, 존재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21) “Aristoteles …aequali esse (ambitu) dicit unum scilicet et ens … resistit Academia, cui placet unum esse prius ente.” p. 206.

아리스토텔레스의 일자에 해당하는 제일질료는 “어떠한 형상도 없기 때문에” 일자의 범주에 속하지만, 존재자의 범주 밖에 있어야 한다”²²⁾고 생각했다. 덧붙여 두 개념의 반대들이 서로 같지 않음을 통해 이 둘의 차이를 설명한다. 즉 하나의 반대는 여럿이고, 존재자의 반대는 비존재자이기에, 오히려 여럿의 비존재자가 있다는 결론을 통해 논의의 발판이 놓이게 된다.

이어지는 2장에서 피코는 앞 장의 아카데미학파들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될만한 플라톤의 대화편 『파르메니데스』와 『소피스테스』를 살펴본다. 그러나 ‘피코가 보기에’ 『파르메니데스』 전체에 그와 관련된 어떤 것도 주장된 바가 없고,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교의가 플라톤의 것이라고 치부하게 할 어떤 것도 명확하게 발견되지 않는다”²³⁾ 『파르메니데스』가 플라톤의 이론을 담고 있는 교의적 대화편이 아닌, 다만 ‘변증술적 연습(dialectica exercitatio)’을 담고 있는 대화편일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피코의 기대고 있는 근거이다.²⁴⁾ 특히 대화편 속에서 그들이 논의하고 있는 주제가 여러 사람이 모였을 때 ‘파르메니데스와 같이 나이 있는 이가 다룰만한 그런 주제가 아니’라

22) *Intra terminos item unius concludi primam omnium materiam, rudem scilicet illam et informem, quae tamen extra, ut volunt, entis limites est. Tum illud afferunt non idem esse quod uni opponatur et quod enti:*”p. 206.

23) “(si maxime asseveretur quicquam), tamen ad liquidum inveiri unde Platoni dogma istius modi ascribamus”, p. 208.

24) 피코가 변증술적 연습일 뿐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언급한 것은 『파르메니데스』 135d4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그 부분을 직접 인용으로 기록해 놓았다. “caeterum colligunt te ipsum diligentiusque te, dum juvenis es, in ea facultate exerce, quae inutilis multis videtur, unde ab illis nugacitas sive garrulitas nuncupata; alioquin veritas te fugiet. (자네 자신에게 집중하고, 특히 젊을 때 많은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그저 수다나 말장난이라고 부르는 능력을 더 열심히 연마하시게, 그렇지 않으면 진리가 그대로 부터 달아날 것이니)”, p. 210.

는 언급²⁵⁾ 역시 이 책과 그 내용이 그저 연습일 뿐이라는 근거임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만약 그것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것, ‘신적인 질서와 만물의 첫째 근거’에 관한 것이라면, 그 주제야말로 나이 든 이가 반드시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피코에 따르면, 아카데미아 학파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 부분이 일자와 존재자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일자가 분할 불가능하고 무한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라면 그런 일자는 존재자가 아닐 것이다”라는 구절이 아카데미아 학파들의 주장처럼 “일자가 존재자보다 우월하다”와 동일한 구절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비판한다.²⁶⁾ 그리고 이로써 『파르메니데스』는 아카데미아 학파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피코는 마무리 짓는다.

그리고 두 번째 근거인 『소피스테스』는 오히려 “일자가 존재자와 동등하다”라는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어떤 것(aliquid)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어떤 하나(unum aliquid)’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는가”라는 구절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즉 “플라톤에게 있어서 ‘하나가 아닌 것(non unum)’은 ‘무(nihil)’와 동등하고, ‘하나’와 ‘어떤 (존재하는) 것’도 동등하다. 따라서 플라톤은 하나가 존재자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²⁷⁾는 것이 피코의 주장이다.

여기까지 아카데미아학파의 주장과 플라톤의 주장을 분리시킨 피코는 3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자(ens)’라는 용어를 확실히 하고

25) 플라톤, 『파르메니데스』, 136d-e.

26) “sed de ente unoque dogma tradatur, quantum haec different asserere scilicet unum super ens esse et hoc asserere futurum ut, si omnia sint unum, illud unum ens non sit,” p. 212.

27) “Aequalia ergo apud eum, immo eadem sunt non unum et nihil, aequalia item unum et aliquid. ... Videtur igitur pro confesso habere unum esse ens,” p. 214. 『소피스테스』의 237a-d의 부분을 근거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한다. 일단 피코가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자는 ‘존재하는 것’, 즉 ‘무가 아닌 것(extra nihil)’을 의미한다. 따라서 존재하는 존재로서 일자는 존재자이다.

1.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과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tau\acute{o}\ \gamma\acute{\alpha}\rho\ \xi\tau\epsilon\rho\omicron\nu\ \tau\omicron\upsilon\ \acute{\omicron}\nu\tau\omicron\varsigma\ \omicron\upsilon\kappa\ \xi\sigma\tau\iota\nu$). 파르메니데스에 따르면 다음의 결론은 분명하다($\acute{\omega}\sigma\tau\epsilon\ \kappa\alpha\tau\grave{\alpha}\ \tau\omicron\nu\ \Pi\alpha\rho\mu\epsilon\nu\acute{\iota}\delta\omicron\nu\ \sigma\upsilon\mu\beta\alpha\acute{\iota}\nu\epsilon\iota\nu\ \acute{\alpha}\nu\acute{\alpha}\gamma\kappa\eta\ \lambda\acute{o}\gamma\omicron\nu$);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일자이며, 그것-일자-은 존재하는 것이다($\xi\nu\ \acute{\alpha}\pi\alpha\nu\tau\alpha\ \epsilon\acute{\iota}\nu\alpha\iota\ \tau\grave{\alpha}\ \acute{\omicron}\nu\tau\alpha\ \kappa\alpha\acute{\iota}\ \tau\omicron\upsilon\tau\omicron\ \epsilon\acute{\iota}\nu\alpha\iota\ \tau\omicron\ \acute{\omicron}\nu$).

2. 존재자와 일자는 하나의 같은 것이고 하나의 성질이다($\epsilon\acute{\iota}\ \delta\grave{\eta}\ \tau\omicron\ \acute{\omicron}\nu\ \kappa\alpha\acute{\iota}\ \tau\omicron\ \xi\nu\ \tau\alpha\upsilon\tau\omicron\nu\ \kappa\alpha\acute{\iota}\ \mu\acute{\iota}\alpha\ \phi\acute{\upsilon}\sigma\iota\varsigma$).²⁸⁾

그리고 『파르메니데스』에서 ‘하나란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카데미 학파 역시 일자인 신을 존재자로 보았을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일자가 신보다 우월한 어떤 또 다른 존재자를 의미하지 않는 한, 일자 역시 존재자이다. 따라서 플라톤의 주장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같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피코는 말한다.

나아가 그들 모두가 찬성해야만 하는 성경에서 신은 그 자신을 “ $\acute{\epsilon}\gamma\omega\ \epsilon\acute{\iota}\mu\iota\ \acute{\omicron}\ \acute{\omega}\nu$ ”, 즉 “나는 존재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상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는데, 이 또한 한 분인 신이 존재한다는 의미로서 일자가 존재자보다 우월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피코는 말한다.

28)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B, 1001a 31, Γ, 1003b 22. “ $\xi\nu\ \acute{\alpha}\pi\alpha\nu\tau\alpha\ \epsilon\acute{\iota}\nu\alpha\iota\ \tau\grave{\alpha}\ \acute{\omicron}\nu\tau\alpha\ \kappa\alpha\acute{\iota}\ \tau\omicron\upsilon\tau\omicron\ \epsilon\acute{\iota}\nu\alpha\iota\ \tau\omicron\ \acute{\omicron}\nu$ ”에서 회랍어 일반 규칙에 따라 관사가 있는 $\tau\grave{\alpha}\ \acute{\omicron}\nu\tau\alpha$ (존재하는 것들)을 주어로 해석했다. 또한 관사와 명사 밖에 위치하는 $\acute{\alpha}\pi\alpha\nu\tau\alpha$ 는 형용사 $\acute{\alpha}\pi\alpha\varsigma$ 의 중성 복수 형태이지만 여기서는 부사로 사용되고 있다. 그 의미는 “모든 존재하는 것(혹은 존재자)은 하나이고 이는 존재자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2. ‘일자’로서의 신에 대한 규정

이어지는 4장에서 피코는 존재하는 ‘어떤 무엇(aliquid)’을 예로 들어 존재자와 일자의 우월성 여부에 관해 논한다. 피코의 말은 다음과 같다.

이름 중 어떤 것은 구체적(복합적-concretus)이고, 어떤 것은 추상적(abstractus)이다. 구체적인 것(복합적인 것)은 ‘뜨거운-것’(calidum), ‘빛나는-것’(lucens), ‘윤나는-것’(candidum), ‘사람’(homo)과 같은 것이고, 추상적인 것은 ‘열’(calor), ‘빛’(lux), ‘윤기’(candor), ‘인간성’(humanitas)과 같은 것이다. 이 둘의 차이는 그 자체로 그러한가, 혹은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러한가에 달려있다. ‘빛나는 것은 ‘빛’으로 인해 ‘빛나는 것’이 되었고, ‘인간’은 ‘인간성’에 의해 인간이 된다.²⁹⁾

우선 모든 존재자는 그것이 가지는 어떤 추상적 본질이 더해짐으로 인해서, 혹은 추상적인 본질을 분유해 가짐으로 인해서 구체적(복합적 concretus)인 이름을 가진다. 즉 구체적인 이름인 ‘뜨거운 것’은 ‘열’이라는 추상적 본질로 인한 것이다. ‘열’과 같이 “추상적이라 불리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러한 것이다”³⁰⁾. 추상적인 어떤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열’은 ‘열’에 참여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열은 뜨거운 것이다’, 혹은 ‘검은은 검은 것이다’ 등으로 말할

29) “Nominum alia concreta, alia abstracta. Concreta: calidum, lucens, candidum, homo. Abstracta: calor, lux, condor, humanitas. Est autem haec vis illorum et diversitas, ut quod abstractum dicitur id notet quod a se tale est, non ab alio; concretum, ex adverso, id significet quod non a se, sed alterius beneficio tale est. Sic lucens luce lucet, candidum candore candidum est et homo humanitate est homo.” p. 222.

30) “ut quod abstractum dicitur id notet quod a se tale est, non ab alio;”

수 없다. 이러한 공식에 따라 ‘존재자(ens)’는 구체적인 것이고 추상적인 것은 ‘존재(esse)’라는 것을 피코는 추론해 낸다. 그렇기에 존재자는 ‘존재하는 것(id quod est)’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존재자는 존재라는 추상적 본질을 분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피코에게 있어서 “신은 존재자가 아니라 존재자보다 우월하다”³¹⁾라는 주장은 타당하다. 그리고 “신은 하나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신만이 유일하게 만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은 하나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모든 수의 원리가 단위인 것처럼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원리이기 때문이다”라고 결론 짓는다.³²⁾ 따라서 쉽게 하나라고 불리는 신은 존재자보다 우위에 있으니 하나가 존재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다.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인 피코는 이것이 플라톤주의자들의 의견과도 합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즉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의 첫 번째 가정에서 일자가 존재자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한 것이라면, 그 일자는 다름 아닌 신일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신 역시도 존재하는 것들인 존재자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점에서 『형이상학』에 등장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과 같다는 것이 피코의 말이다. 그러나 물론 『형이상학』 6권에 그와 동일한 주장은 등장하지 않는다.³³⁾ 그럼에도 피코는 이리

31) “Deum non esse ens, sed super ens”p. 224.

32) “unum enim inquit Dionysius dicitur Deus quia unice est omnia, unum dicitur quia ita principium omnium est quae sunt sicut omnium numerorum principium unitas est.”p. 226.

33) 앞서 언급했듯 ‘신’이라는 용어는 12권에서야 처음으로 등장한다. 피코가 예시로 들고 있는 6권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하나와 존재자 가운데 무엇이 더 우월한지 밝혀지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신을 부르는 이름이 ‘하나’인지 ‘하나인 분’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피코는 하나를 둘러 나눈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을 빌려서 설명한다(『형이상학』, 5권 6장). 즉 “하나를 한편으로는 부차적인 방식으로, 또 한편으로는 그 자체로 하나이다”. 앞의 설명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 자체로 하나인 ‘하나’인지, ‘하나’를 분유하

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은 오직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지 않는 자들”³⁴⁾ 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피코가 4장의 마지막에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라는 듯이 덧붙이고 있는 구절은 오히려 지금까지의 주장을 다소 모호하게 만든다. 피코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12(Λ)권 1076a 4에서 호메로스의 다음 구절을 인용했다고 말한다.

지도자는 오직 하나일지니, 오직 하나의 왕
(εἷς κοίρανος ἔστω, 205εἷς βασιλεύς,)³⁵⁾

그렇기에 피코는 “어떤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불화한다는 것인지, 어떤 점에서 불경하다는 것인지(Ubi discors a Platone est Aristoteles? Ubi prophanus?) 알 수 없다는 탄식을 토하면서 4장을 마무리 한다.

이러한 주장 이후에 이어지는 5장에서는 “플라톤이 『국가』 6권에서 좋음의 이데아로 부르는 신을 지성과 가지적인 것들보다 상위에 위치시키고” 있는 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종종 신을 인식, 인식하는자, 가지적인 것들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근거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립하는 것은 아님”을 주장한다. 이것이 5장에 등장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의 전부이다. 일자의 존재자에 대한 우위를 논했던 것은 플라톤이 아닌 플라톤주의자들

고 있는 ‘하나인 것’으로서의 ‘하나인 분’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34) “Hoc qui dicunt Aristotelem non legerunt”, p. 226.

35) Homeros, Iliad, II, 204. οὐκ ἀγαθὸν πολυκοιρανίη: εἷς κοίρανος ἔστω, εἷς βασιλεύς (많은 법은 좋지 않으니, 오직 하나의 지도자, 오직 하나의 왕이 있을지어라).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상 Met. 12(Λ)권 1076a 4에서 호메로스의 “οὐκ ἀγαθὸν πολυκοιρανίη: εἷς κοίρανος ἔστω.” 구절을 인용했는데, 의도적으로 뒷 부분만을 따로 인용한 듯 하다.

이며, 그들이 근거로 삼는 『파르메니데스』는 다만 변증법을 위한 연습에 불과하기 때문에 플라톤의 학문적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자는 많은 점에서 하나로서 존재하는 존재자이기에 결국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대립할 수 없다는 것이 중간 결론이다.

3. ‘일자’의 ‘존재자’로서의 성격

6장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질료(prima materia)를 주요 도구로 삼아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의 합일을 시도한다. 피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질료’가 존재하는 ‘한에서’ 하나인 무엇일 수 있다면, 플라톤이 『티마이오스』에서 최초의 시작을 위해 필요한 어떤 것으로 설정한 ‘셋째 종류’의 것 역시 ‘일종의 수용자이자 유모’로서 존재하는 하나라는 것이다.³⁶⁾ 그리고 이를 제일질료의 존재자로서의 성격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 일자가 존재자보다 더 보편적이라는 플라톤주의자들의 견해를 논박하기 위해 그는 동물과 인간이라는 두 개의 종을 생각해 볼 것을 제안한다. 즉 동물과 인간이라는 두 개의 종이 있다. 동물은 더 공통적인, 혹은 보편적인 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때문에 인간의 종에서 벗어난 비인간인 포유류와 같은 것들은 비인간이면서도 동물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하나가 존재자보다 더 공통적이라면, 비존재자이

36) “이는 일체 생성의 수용자인 것으로, 이를테면 유모와 같은 것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πάσης εἶναι γενέσεως ὑποδοχὴν αὐτὴν οἷον τμήνην*).” 플라톤, 『티마이오스』, 박종현 역, 파주: 서광사, 2000, 49a. 물론 플라톤은 셋째 종류가 정확히 무엇인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언제나 존재하는 것으로 생성을 갖지 않는 것’이며 ‘지성에 의해 포착되는, 언제나 같은 상태의 것’(27d)이 첫째의 것으로 상정된 마당에 셋째의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질료에 대입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다.

면서 하나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비존재자는 하나라는 말도 성립되어야 한다.³⁷⁾ 그리고 이는 플라톤 역시 『소피스테스』에서 반박했던 내용이다.³⁸⁾ 이상이 7장에서의 피코의 주장이다.

이어지는 8장에서 피코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존재자(ens), 하나(unum), 참된 것(verum), 좋은 것(bonum)은 신에게 존재하는 속성이자, 신 이후에, 신에 의해 존재하는 것들이기도 하다. 신 이후에 존재하게 된 모든 만물은 신 자신으로부터(ab ipso), 신 자신을 통해(per ipsum), 신 자신을 향해(ad ipsum) 존재하게 되었기에 신을 작용인(efficientes) 범형인(exemplaris), 목적인(finalis)으로서 갖는다. 사물은 신의 작용에 따라 존재(esse)에 비로소 참여하게 되었고, 완벽한 신을 모범(exemplar)삼아 참되다(verae)고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궁극목적(finis ultimus)을 신으로 정했을 때, 궁극적으로 좋다(bonae)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사물은 그 자체로 파악할 때 ‘하나의 것(una)’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특별한 속성이나 성격을 부여받은 어떤 것(aliquid)이기 이전에 그저 존재하는 것으로서 존재자(ens)여야 한다. 그리고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면 그것은 각자 하나(unum)이다. 그렇지 않다면 플라톤이 『소피스트』에서 주장했듯, 무(nihil)가 되기 때문이다.³⁹⁾ 그렇게 존재하는 존재자는 동시에 참되다. 존재자가 어떤 것으로

37) 이에 대한 피코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마찬가지로의 논리에 따라 하나가 존재자보다 공통적이라면, 어떤 것이 하나임에도 비존재자 이거나 무가 되는 일이 가능한데, 이 경우 하나는 비존재자에 대한 술어가 되어버린다(Pari ergo ratione, si sit unum ente communius, fieri poterit ut aliquid sit non ens sive nihil, quod tamen sit unum, atque ita de non ente unum praedicabitur)”. p. 252. 그리고 여기에 ‘어떤 것(ri)’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소피스테스』에서 플라톤 역시 그러하다고 근거를 마련한다(『소피스테스』, 237d.)

38) 『소피스테스』, 238d-e.

서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그 어떤 것이라는 말이 된다. 즉 “‘이것은 참된 금이 아니다’는 말과 ‘이것은 금이 아니다’는 같은 말이다”.⁴⁰⁾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⁴¹⁾

그리고 피코는 이렇듯 플라톤의 설명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사물을 하나로부터 둘 이상으로 분할 한다는 것은, 사물의 본성인 단일성을 박탈함으로써 존재(esse)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8권에서 언급했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런데 사물을 분할 한다는 것은 또한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물의 존재(esse)를 온전히 보전하면서 동시에 그 사물 자신의 본성인 단일성을 박탈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이상학』 8권에서 알려주듯이, 전체는 자기의 부분들이 아니라, 부분들로부터 발생한 하나이기 때문이다.⁴²⁾

물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각각 『소피스테스』와 『형이상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는 완전히 다르지만 피코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기꺼이 두 논변을 이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자로서의

39) 『소피스테스』, 251a-253b.

40) “idemque dictu ‘hoc non esse verum aurum’ et ‘non esse aurum’ p. 256. 피코는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Augustinus의 『독백』, 2. 5. 을 제시한다.

41) “quia quicquid est, quatenus est, bonum est” p. 258. 그리고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 성경의 창세기 1:31을 제시한다. “신은 그가 만들었던 모든 것을 보고 그것들은 참으로 좋았다(고 말했다. Vidit enim Deus cuncta quae fecerat et erant valde bona)”.⁴²⁾

42) Sed et dividere rem idem est quod destruere, nec ita possumus rei cuipiam suam et naturalem unitatem adimere, ut nihil minus illius esse in sua integritate remaneat. Non enim totum est suae partes, sed illud unum quod dissultat ex partibus, ut docet Aristoteles octavo libro Primae Philosophiae. p. 262.

일자에 관한 논의는 9장으로 이어진다.

피코는 존재자의 네 가지 성질이 어떻게 신 안에 존재하는지를 말함으로써, 이제 존재자의 신으로서의 속성을 증명하려 한다. 하나인 분(unus)으로서 신은 어떤 대립자도 허용하지 않는 참된 존재이다. 또한 신은 가장 참된 것(verissimum)이다. 그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이비(似而非)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는 진리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그는 또한 좋음(bonitas) 자체이다. 그리고 피코는 이에 대한 플라톤의 주장이 『필레보스』에 있음을 밝힌다. 플라톤의 서술에 의하면 좋은 것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완전한 것’, ‘충분한 것’, ‘바람직한 것’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이다.⁴³⁾ “따라서 신은 가장 완전한 실재이고, 분할할 수 없는 단일성이며, 가장 확고한 진리이자, 지복한 선성이다”.⁴⁴⁾ 다만 사물의 존재 원인인 한에서 신에게 주어질 이름은 우선적으로 ‘하나인 분’이고 그 네 번째가 존재자임을 피코는 마지막으로 강조한다. 목적인이 작용인에 선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피코의 설명이다.

마지막 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충분히 자신의 주장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설득했다고 가정한 그가 건네는 도덕적 당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우리는 신의 창조물이기에 신이라는 작용인을 따라서 단일성

43) “좋은 것의 부류는 필연적으로 완전한가 아니면 완전하지 못한가, … 좋은 것은 충족한가 충족한 것이 아닌가. … 그렇지만 좋은 것에 관해서는 이 점을 말해두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으니. 즉 그것을 아는 모든 것은 그것을 추구하고, 또한 그것을 취하여 자기 가까이 갖고 있기를 바라면서 그걸 지향 ….” 박종현은 각주에 이 세 번째 것을 ‘택함직함’이라고 해 놓기도 한다. 뒤이어 21a에서는 이 세 가지 조건을 함께 갖춘 것을 ‘참으로 좋은 것(τὸ ὀντως ἀγαθόν)’이라고 칭하고 있다. 플라톤, 『필레보스』, 박종현역, 파주: 서광사, 2004, 20c-d.

44) “Deus ergo plenissima entitas, individua unitas, solidissima veritas, beatissima bonitas”, p. 264.

(unitas), 진리(veritas), 좋음(bonitas)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신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IV. 피코의 주장에 대한 당대의 반박

그러나 피코의 주장은 완벽하지 않아 보인다. 물론 피코가 설득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이러한 글을 썼는지는 상대적으로 분명하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결코 대립하지 않았으나 후대에 두 철학자를 연구하던 추종자들, 즉 아카데미학과 소요학파의 오해로 인해 잘못 와전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피코는 존재자와 일자에 대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플라톤주의자들의 논의가 곧 플라톤의 논의와 동일하지 않다는 반박은 차치하더라도 플라톤의 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 비슷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 납득할 만한 근거는 찾기 힘들다.

또한 종교적 분위기를 감안해서 일자를 신으로 보려는 이유는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그 스스로 단지 ‘변증술적인 연습’에 불과하다고 분류했던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편에 등장하는 ‘하나’를 어떻게 곧장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개념인 신으로 치환할 수 있는지도 동의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당대 학자들이 알아채지 못할 리 없고, 그러한 사실은 피코가 가진 명성의 크기만큼이나 거대한 먹잇감이 되었다. 그리고 이를 가장 야무지게 잡아챈 이는 치타디니였다.⁴⁵⁾

45) Antonio Cittadini di Faenza(c. 1450/1452-1518), 바첼리(F. Bacchelli)에 따르면 르네상

치타디니의 반박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된다. 즉 저서의 제목이 『존재자와 일자에 관하여-De Ente et Uno』라면, 그 내용은 응당 존재자와 하나의 ‘본성(natura)’과 ‘속성(proprietas)’에 대한 고찰이 우선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타디니가 읽은 피코의 글은 오직 “플라톤에게서 존재자와 일자의 의미가 서로 동등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가 존재자보다 더 보편적인지를 논의 하려 한다는 것”이다.⁴⁶⁾

또한 피코의 제 4장의 내용에 대한 비판을 보자. 피코는 이름, 혹은 존재하는 것을 보다 ‘구체적인 것들(복합적인 것들-concreta)’과 ‘추상적인 것들’이라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그러나 치타디니가 보기에 만약 플라톤의 주장을 근거 삼아 존재와 존재자가 다르고, 그로 인해 신은 존재자가 아닌 하나라고 한다면, 하나는 단일성보다는 더 구체적 혹은 단일성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복합체이기 때문에 신은 결코 하나인 분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즉 “그러니 단일성이자 지복이요, 동시에 신성이신 신은 하나인 분으로 불릴 수 없고, 복된 분, 전적으로 신이라고도 불릴 수 없다”⁴⁷⁾. 피코는 자신의 말 속에서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있다.

스 시대의 유명했던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페라라, 피사, 파도바 대학에서 자연철학의 대가로서 강의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분석론후서』, 『자연학』, 그리고 『영혼론』에 대한 그의 논문과 논평이 발견된다. (바첼리의 미주 84에서 재인용). 그는 1490년부터 1496년 사이에 피코와 편지를 통해 논쟁을 벌였고, 피코 사후에는 피코의 전기 저자인 잔 프란체스코와 논쟁을 이어갔다. 치타디니가 먼저 피코의 글에 반박을 하고 이에 대해 다시 피코가 응답하는 방식으로 세 차례에 걸친 반박과 응답이 있었으나 피코의 이른 죽음을 때문인지, 혹은 치타디니와의 논쟁에 이미 흥미를 잃었기 때문이었어서인지, 1491년 후반에 쓰여진 것으로 보이는 네 번째 치타디니의 반박에 응답하지 않은 채 이 과정은 끝나게 되었다. 본 논문이 사용한 피코 원문 pp. 160-171(바첼리의 미주에서 재인용).

46) “principale siquidem auctoris propositum est disputare an iuxta Platonem ens unumque sese invicem mutuo consequantur, an, ut Academici putant, unum sit ente communius.” p. 274.

47) “Deus igitur, qui unitas est et beatitudo simul et deitas, neque unus vocari poterit, nec beatus, nec omnino Deus.” p. 276.

또한 애초에 존재자가 존재자일 수 있는 것은 존재한다는 그 존재성을 전제하고 있음을 피코가 잊고 있다는 것이 치타디니의 지적이다. 물론 신에게서 존재자라는 이름을 지우기 위해 피코가 일부러 그러한 공식을 도입했을 것으로 치타디니는 이해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공식에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적용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때문에 치타디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코가 플라톤에 의거해 신이 존재자가 아니라는 것을 옹호하려 했을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마저도 바로 그 견해로 끌어들이는 사실은 더 놀랄 수 있겠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형이상학』 5권에서, … 설혹 그것이 플라톤의 견해라 할지라도, 이 책의 저자가 어떤 논증에 이끌려 우리의 아리스토텔레스를 플라톤의 의견에 귀속시킬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⁴⁸⁾

다시 말해서 플라톤은 신을 존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을지 모르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10개의 범주들 가운데 실체와 우유적 속성의 결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10개로 나누고 있고, 이 존재자들은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와 9개의 우유적인 속성들로 나뉜다고 말한다. 따라서 우유적인 속성이 아닌 신은 실체로서의 존재자일 수밖에 없고 신은 범주에 속하게 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과 같다는 피코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48) “Admirabilis autem videri potest quod non solum iuxta Platonem defendere conatur Deum ens non esse, verum etiam Aristotelem quoque ipsum in eandem sententiam trahere conatur. Quinto enim, inquit, Methaphisicae libro … non video qua ratione ductus operis auctor Aristoteli nostro Platoniam ascribat opinionem, si tamen opinio Platonis est.” pp. 276-278.

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치타디니의 반박이다. 그리고 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근거한 올바른 문제제기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치타디니가 반박하는 것은 ‘하나(unum)’의 부정(negatio)’으로서의 분할된 것’에 대한 피코의 설명이었다. 치타디니는 이에 대해 피코의 논리적 부정확성을 설명하려 했으나 그의 비판은 지나치게 엄정해서 반대(contrarium)로서의 대립(opponi)과 모순(contradictio)으로서의 대립을 따지게 되고, 결국 ‘키마이라’라는 고대 신화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로 빠지게 되었다.

정리하자면 치타디니가 진심으로 궁금해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의가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피코는 이러한 문제 제기를 자신의 글을 꼼꼼히 읽지 않은 치타디니의 어리석음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식의 모욕은 치타디니로 하여금 더 자세히 읽고 더 치밀하게 반박하게 만들었고 그 역시 피코에게 “대립과 모순”의 개념도 모르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쓰게 된다. 이에 대해 피코는 논리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그 자신도 “알고 있었으나”, 일부러 “스치듯 끝맺었던” 것인데, 치타디니는 그런 자신의 ‘원대한 의도’를 모르고 사소한 문제를 걸고 넘어졌던 어리석은 이로 치부하게 게 되면서 그렇게 되면서 두 사람의 반박과 응답은 본래의 중요한 내용에서 점차 멀어져 개념에 대한 논박과 무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⁴⁹⁾

49) 피코는 두 번째 응답에서 마치 변명인 듯 이렇게 말한다. “첫 번째 편지에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빠뜨렸음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관해서 말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또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짧게 다루었을 뿐인데, 이는 그것들이 철학자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 알려주면 그만일 사안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까지 요청하시니 이제 우리는 극히 사소한 문제들까지도 추적할 것입니다(Equidem non negabo in primis litteris quaedam

V. 결론

『존재자와 일자』는 일자가 존재자보다 더 우월하다는 플라톤학파의 견해가 플라톤의 주장이 아니며, 오히려 플라톤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결코 대립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10개의 장으로 나눠서 개진하는 피코의 짧은 글이다. 피코는 『파르메니데스』와 『소피스테스』의 주요 부분을 증거 삼고서 이러한 견해가 플라톤에게 있어서 비존재자로서의 일자에 관한 설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그의 이러한 시도 자체가 당대의 철학자들과 달랐고 반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필자가 생각하는 바는 그의 이러한 주장이 『인간 존엄성 연설』에서부터 일관된 생각이었다는 것이다. 인간이기에 신이 선물한 그 지성을 이용해서 어느 학파의 사상에도 머물지 않으려는 그의 의지를 나타낸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일자로서의 신은 당연히 존재자보다 우월하다는 플라톤주의자들의 입장에서 피코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을 것이다. 피코의 주장은 견고하지 않았고 결국 동시대의 학자였던 치타디니의 반박을 받게 되었다. 피코는 반박에 차분히 답변하면서도 결코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다. 동시에 반박했던 치타디니도, 『존재자와 일자』를 읽은 이들도 시원하게 의문이 사라지지는 않은 채로 피코는 재빨리 현실 세계에서 퇴장해 버렸다.

omissa, quibus nihil responsum est, ne in levibus rebus verba prodigerem; quaedam breviter a me tractata, ut qui philosopho homini indicandas res potius crederem quam explicandas. Nunc, postquam a me hoc postulas, minutula etiam quaeque consecrabimur et per singula capita tuarum quaestionum iubebo meminisse eorum, quae prius scripsimus, excitaboque, ubi erit opus, ad eorum profundiores intelligentiam)" p. 320. .

그렇다면 피코가 말하려고 한 바는 무엇이이었을까? 결국 읽는 이의 몫이겠지만, 피코가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들의 공통된 사상이라고 강하게 부르짖었던 것이 아마도 피코 자신의 주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신은 일자로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넘어서 있기에 결코 존재자일 수 없다. 그러나 신은 그렇게 완전함 자체로서 세상에 존재하고, 완벽한 신은 동시에 자신이 창조한 이 완벽한 세상을 사랑했기에, 그러한 완벽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했을 것이라는 것이 『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에 드러난 그의 사상이다.

나는 너를 세상의 한 가운데에 위치시켰다. 그리하여 세상에 있는 것들 가운데서 아무것이나 편한 대로 살펴보게 하였노라. 우리는 너를 천상 존재로도 지상 존재로도 만들지 않았고, 사멸할 자로도 불멸할 자로도 만들지 않았으니, 이는 자의적으로 또 명예롭게 내가 네 자신의 조형자(造形者)요, 조각가로서 내가 더 좋아하는 대로 형상을 빚어재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네 자신을 짐승 같은 하위의 존재로 퇴화시킬 수도 있으리라. 그리고 그대 정신의 의사에 따라서는 신적이라 할 상위 존재로 재생시킬 수도 있으리라⁵⁰⁾

아마도 이러한 생각이 피코를 위대한 르네상스 지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위치 짓도록 만든 이유일지 모른다. 존재자와 일자에 대한 그의 주장이 이 책 『존재자와 일자』에서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살피는 것도 하나의 목표라 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가 이러한 시도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이었을지를 가늠해 보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인문정신이 ‘인간의 존엄’이라는 사

50) 성염, 『피코 델라 미란돌라-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6. p. 135.

상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존재자와 일자』는 이미 지나온 자리인 중세라는 토대를 허물지 않고, 그 위에 부활된 인문주의 정신을 토대 삼아서 빛나는 두 지성을 고찰하고자 하는 휴머니스트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성엄, 『피코 델라 미란돌라-인간 존엄성에 관한 연설』, 철학과 현실사, 1996.
-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조대호 역, 길, 2017.
- 키케로, 『아카데미아 학파』, 양호영 역, 아카넷, 2021.
- 플라톤, 『티마이오스』, 박종현 역, 서광사, 2000.
- _____, 『필레보스』, 박종현 역, 서광사, 2004.
- _____, 『소피스트』, 이창우 역, 아카넷, 2019.
- Aristotle, *Metaphysics*, vol. 1, Oxford: Oxford Clarendon Press, 1953.
- Green, L., “The Reception of Aristotle’s Rhetoric in the Renaissance,” in *Peripatetic Rhetoric After Aristotle*, eds. W. W. Fortenbaugh, D. C. Mirhad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4.
- Hankins, J., *Plato in the Italian Renaissance*, Leiden: Brill, 1991.
- Karamanolis, G., “Pletho and Scholarios on Using and Abusing Plato and Aristotle”, *Harmony and Contras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2.
- Massi, F., “Plethon, L’Averroisme et le probleme religieux,” in *Actes du Colloque International sur le Neoplatonisme*, Editions du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ed. P. M. Schul & P. Hadot, Paris: Éditions du CNRS, 1971.
- Monfasani, J., *George of Trebizond: A Biography and a study of His Rhetoric and Logic*, Leiden: Brill, 1976.
- _____, “Marsilio Ficino and the Plato-Aristotle Controversy,” in *Marsilio Ficino: His Theology, His Philosophy, His Legacy*, ed. Michael J. B. Allen et al. Leiden: Brill, 2002.
- Pico della Mirandola, *Dell’Ente e dell’Uno*, eds, and trans. Bacchelli, F. and Ebgi, R., Milan: Bompiani, 2010.
- _____, *Über das Seiende und das Eine. De ente et uno*. Hrsg., übers. und komm. von Paul Richard Blum et al. lateinischdeutsch. Hamburg 2006.
- Pico Mirandulanus, Joannes: *Opera omnia*, Basel 1572. Reprint hrsg. von Garin, E., Turin 1971.
- Plethon, *De Differentiis Platonis et Aristotelis*, by B. Lagarde, “Le <De

- Differentiis》 de Plethon d'après l'autographe de la Marcienne”, *Byzantion*, vol. 43 (1973), 312-43.
- Scholarios, *Contra Plethonem* 3.1-4, ed. L. Petit, X. A. Siderides, M. Jugie, *Oeuvres Complètes de Georges Gennade Scholarios*, 8 vols [Paris, Maison de la Bonne Presse, 1928 1936], IV)
- Schulz, P. J., “The Controversy between Platonists and Aristotelians in the Fifteenth Century”, *Philosophers of the Renaissance*, ed, P. R. Blum,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10.
- Woodhouse, C. M., *George Gemistos Plethon: The Last of the Hellen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http://www.perseus.tufts.edu/hopper>.

【국문초록】

르네상스 전성기의 피렌체에서는 플라톤주의자들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들의 논쟁이 한창이었다. 그리고 이 시기 두 학파 사이의 중재를 시도했던 피코 델라 미란돌라가 있었다. 그는 플라톤의 하나 혹은 일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자와 결코 대립하거나 우월성에서 차이가 있지 않음을 보여주하고자 했다. 그럼으로써 신학적 심판으로부터 철학을 보호하고자 했다. 그러한 목적으로 그가 쓴 작은 책이 『존재자와 일자』이다. 이 논문은 피코 델라 미란돌라가 쓴 이 책을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장 치열한 담론의 현장에서 대담한 주장을 펼친 이 책은 당연히 반박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그는 친절하게 답변을 하지는 않는다. 그가 책을 쓴 목적이 처음부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목적은 두 철학자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이들 사이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코라는 인문주의자의 노력을 소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주제어: 존재자, 일자, 피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르네상스

【 ABSTRACT 】

A Study of De Ente et Uno by Pico della Mirandola

Kim, Eunju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Department of Philosophy · Lecturer)

In Florence, during the heyday of the Renaissance, the debate between Platonists and Aristotelians was in full swing. During this period, Pico della Mirandola attempted to mediate between the two schools by showing that Plato's the One was in no way opposed or superior to Aristotle's Being. In this way, he intended to protect philosophy from theological judgement. The concise work he wrote for that purpose is titled *De Ente et U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is book, which made bold claims in the most intense debate and naturally became the target for refutation. However, he doesn't respond kindly to these critiques, as his original intent was not to explain the philosophies of Plato and Aristotle but to reconcile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philosophers and their followers. This article introduces the efforts of the humanist Pico.

Key words: Being, the One, Pico, Plato, Aristotle, Renaissance

투고 접수: 2024. 11. 04.	심사 완료: 2024. 12. 09.	게재 결정: 2024. 12. 10.
----------------------	----------------------	----------------------